

던 시대의 원리에서 나온 도덕률의 산물이다. 그러한 논리에서는 일화가 되고 미담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 것이나 그 쫓겨난 며느리의 처지로 본다면 비정함이 지나친 경우가 될 것이다. 그 며느리가 비록 우애를 해쳤다 손치더라도 이처럼 가혹한 극단 조치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 아내의 분가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거짓 꾸며 마을 사람까지 모아 놓은 자리에서 공개적인 인격 살인을 자행한 것은 유교 윤리의 최고 가치인 인仁을 해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한쪽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쪽을 훼손시키는 모순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한처당일원가빈悍妻當日怨家貧 : 사나운 아내가 하루는 집이 가난함 원망하여  
불념영원골육친不念畱原骨肉親 : 형제가 상부하는 골육의 친함을 생각지 않으니  
회합향려휘부거會合鄉閭揮婦去 : 마을 사람 회합시켜 놓고 아내를 휘몰아 내침으로  
할정전애독천륜割情全愛篤天倫 : 정을 자르고 우애를 온전히하여 천륜을 도타이했네  
동의체식의은근同衣遞食意殷懃 : 옷 내려 입고 밥 나누어 먹는 동기의 뜻은근하고  
장침당년불의분長枕當年不擬分 : 긴 베개 함께 베던 시절 나뉘일 생각 없었는데  
하물부인요간설何物婦人饒間舌 : 부녀자가 무엇이기에 인간의 요설인가  
일심유경절지훈一心愈更切 塤 : 한 마음으로 더욱 고쳐 형제애 간절해지네

지훈 塤는 시의 각운脚韻을 맞추느라 훈지塤 를 도치해 쓴 것이고, 훈지는 흙으로 만들어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 피리 훈塤과 대나무로 만들어 어린애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 지 를 말한다. 시경詩經에서 ‘백씨취훈伯氏吹塤 : 형은 훈을 불고, 중씨취지仲氏吹 : 아우는 지를 분다 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훈지상화塤 相和라는 성어를 만들었으며, 이는 형제가 서로 화합함을 비유하게 되었다.

248. 강굉동피姜肱同被  
강굉姜肱은 한나라 때 평성彭城 사람

으로 그 집안이 대대로 명족名族인 터에 그 두 아우 해海와 강江과 함께 다 효행이 있어 소문이 드러났으며 우애가 천성으로 지극하였다. 항상 형제가 한 이불에서 누워 자고 일어났는데 각기 아내를 얻고 나서도 형제가 서로 그 러 별도로 떨어져 자지를 못했다. 다만 후사後嗣는 마땅히 이어야 하므로 소생을 보기 위해 갈마들어 아내의 내실內室에 가 자는 날을 제외하고는 형제가 같이 자는 것을 폐하지 않았다. 그러한 강굉이 한번은 막내아우 강과 함께 들에 나갔다가 도적을 만났다. 도적이 이들 중 하나를 잡아먹고자 아우 강을 죽이려 하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죽고자 다투면서 형 굉이 말하기를 ‘내 아우는 나이가 어리고 우리 부모님이 연민憐愍하시며 또한 장가도 들지 못했으니 원컨대 내 몸을 죽여 아우를 구제케 하여 주시오’ 하니 아우 강이 말하기를 ‘ 형은 그 앞에 나이와 덕망이 있어 집안의 진보珍寶이고 국가의 영준英俊입니다. 빌컨대 스스로 죽임을 받아 형의 목숨을 대신하게 해 주시오’ 하였다. 이에 도적이 칼을 거두면서 ‘ 두 사람이 현인賢人인데 우리가 불량하여 망령되이 서로 침범하였다’ 하고는 마침내 둘 다 풀어주었다. 제목 강굉동피姜肱同被는 강굉이 이 불을 같이 덮었다는 뜻이다. 옛적의 주택구조에서 방이 넉넉지 않을 때에 형제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도 한 방을 쓰며 같은 이부자리에서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하다 보니 대가족제에서 장가를 든 뒤에도 형제가 사랑채의 같은 방을 쓰는 일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43년 해방 전후까지 이러한 형태의 가족살을 하였고, 대개의 경우 신혼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한 방에 거처하는 일이 드물었다. 가족구조가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고 그 사이에는 중문中門이라는 게 있어서 별도의 구역이 되었던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내실이 각자 며느리에게 따로 있지 않아 며느리들이 동서끼리 한 방에 거처하면 집안의 내외 어른의 지시에 따라 젊은 내외가 합방합房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는 정한 날짜에 별도의 합방살을 마련하는 일이 집안의 행사처럼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 방을 치운다 고 일컬었다. 이러한 옛 풍습을 알아야 이 일화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갈 것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이제동거공일금二弟同居共一衾 : 두 아우와 한 이불로 같이 지내면서  
천륜정지우우심天倫情至友于深 : 천륜의 정 지극하여 우애가 깊었네  
창황우난쟁투사蒼皇遇難爭投死 : 창황중에 난을 만나서는 서로 죽기를 다투니  
양석중능감적심兩釋終能感賊心 : 둘다 풀려나면서 끝내는 도적의 마음 감동시켰네  
제공형우약혼지弟恭兄友若塤 : 아우가 공경하고 형이 우애함 흙피리와 대나무피리 어울림이요  
거침수유불인리居寢須與不忍離 : 자는 방에서도 잠시 떨어지기 싫어하며  
갱유지정난엄처更有至情難掩處 : 지극한 정이가 더한 것 가릴 길 없는데  
공간쟁사모위시共看爭死冒危時 : 위태로울 때는 이를 같이 보고 죽기를 서로 다투었네

249. 왕람쟁짐王覽爭B  
왕람王覽은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인데 그 이복 형 왕상王祥과 더불어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그 어머니 주씨朱氏가 무도하여 전실 아들 상을 학대하였는데 남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그 형상이 회초리를 맞는 것을 보면 문득 울먹이며 그 형의 종아리를 얼싸안고 막았다. 이윽고 자라 소년이 되어서는 그 어머니에게 간곡히 간하여 그 어머니가 흉악凶虐한 짓을 조금 덜하게 하였다.

주씨는 그래도 자주 이치가 아닌 일로 상을 혹사시켰는데 그럴 때는 남이 문득 상과 같이 그 일을 견디며 해냈다. 주씨는 또한 상의 아내도 학대하며 혹사시켰는데 그럴 때면 남의 아내가 곧 함께 도와 상의 아내와 그 일을 하였다. 남 내외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근심하여 주씨는 상 내외를 혹사하기를 그만두었다. 이제는 주씨가 몰래 상에게 짐독B毒을 탄 술을 먹이려 하였다. 남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일어나 형에게서 그 술을 앗으려 하니 상이 그 술에 독이 있음을 눈치채고 다투며 아우에게 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를 본 주씨가 급히 그 술을 빼앗아 땅에 엔질러 버렸다. 이로부터 주씨가 상에게 무슨 음식을 주면 남이 문득 나타나 먼저 맛보고 형이 먹게 하니 어머니 주씨가 제 소생자 남이 먼저 치사할까 두려워 마침내 독살하기를 그만두었다. 제목 왕람쟁짐王覽爭B은 왕람이 짐

독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뜻이다. 짐독은 짐B이라는 독조毒鳥의 맹독을 말하며 그 새의 깃으로 술을 저어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짐살B殺하다면 독살한다는 말이 되었다. 짐주B酒라 하면 짐독이 있는 술인데 곧 독주이다. 짐은 짐B으로도 쓰며 같은 글자이다. 옛적 어두운 시절에는 왕람의 어머니 주씨 같은 계모가 더러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콩쥐팍쥐 이야기 같은 민화가 있게 되었다. 여자의 증오와 히스테리는 집요한 것이어서 지금이라고 이러한 일이 없으란 법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인 것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은모시시학시형姆時時虐視兄 : 어리석은 어미가 수시로 형을 학대하니  
간형피달통아정看兄被撻痛兒情 : 회초리 맞는 형을 보는 어린 마음이 아팠고  
신동실부대형수身同室婦代兄嫂 : 일신인 아내로 하여금은 형수를 대신케 하며  
공복근로서감성共服勤勞庶感誠 : 함께 힘써 어려움을 나누어 모두가 정성에 감복케 했네  
짐비호주하의음B非好酒何宜飲 : 짐주가좋은술아닌데어찌마셔되겠는가  
형제쟁지모취번兄弟爭持母取辱 : 형제가 다투어 가지려 하니 어미가 빼앗아 었질렀네  
중차모손아첩시從此母 兒輒試 : 이로부터 어미가 음식을 주면 아이가 문득 시식하니  
주선모자경전은周旋母子竟全恩 : 모자가 두루 깨달아 필경은 모두 은혜롭게 되었네

250. 유곤수병庾褒守病  
유곤庾褒은 중국 진나라 때 영천潁川 사람인데 함녕咸寧(진 무제武帝 사마염司馬炎의 연호로 서기 275 280) 연간에 큰 역병疫病이 돌아 두 형이 모두 죽고 그 다음 셋째 형 비毗가 다시 위태롭게 되었는데 전염병의 여기전氣는 바야흐로 치열하였다. 부모와 여러 아우는 모두 밖에 나가 거처하여 전염이 안되도록 환자와 격리하는데 홀로 곤이 형 곁을 떠나지 않으니 여러 부형

15면으로 계속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4·6배판 163면에집성된 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 大輔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 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敘事의안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저자－權五焄

저작권자－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중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